

학사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진로계획과 직업관

최하나 · 이수영 · 조영식[†]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Career Plan and Job View of the Would-be Graduates of Dept. of Dental Hygiene

Ha-Na Choi, Su-Young Lee and Young-Sik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Namseoul University, Mae Ju-Ri Seonghwan-Eup Seobuk-Gu Chonan 331-707, Korea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the career plan and job view of the students of Dept. of Dental Hygiene who are expected to graduate with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jobs after graduation, compare them with the graduates of associate of science degree and finally give a basic data necessary for developing careers in the future. From the survey of 184 would-be graduates of Departments of Dental Hygiene at 6 universities that produce dental hygiene graduates in 2011 and 251 would-be graduates with a A.S. degree of Dept. of Dental Hygiene, whose course takes 3 years, this paper reaches the conclusion below. More graduates with B.S. degree in dental hygiene than those with a A.S. degree want to attend graduate school after graduation. It is found that most of the graduates with B.S. degree in dental hygiene wanted to work as a dental hygienist until they reach retirement age after getting a job. They favor dental hospitals, which give them a higher salary and ensure them of retirement age. They have a lower-esteemed job view: they think that their jobs are socially lower regarded, compared with graduates with a A.S. degree. It is found that those who wish to attend graduate school have lower job satisfaction than those who want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institutes of dental hygiene to teach their graduates have a positive attitude their job and for the association to make an active effort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s well as dental hygienists by enhancing social recognition of a dental hygiene.

Key words B.S. DH, Career plan, Job view

서 론

최근 4년제 학사과정 치위생학과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 학사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치과의료 분야에서 학사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 양성교육은 1965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1977년 4개 대학에 2년제 과정의 치위생과가 개설되었고 1994년부터 교육 연한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¹⁾. 또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가 2002년 처음으로 개설됨으로써 학문적인 연구와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현재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치위생과는 56개가 시행되고 있으며 학사학위 과정의 치위생학과는 22개가 운영되고 있다. 2002년 1개교에 개설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은 2003년 2개교에 신설되었고 이 후 4년제 학사과정의 신설과 전문대학의 일반대학교로의 전환이 계속되어 4년제 학사과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2011년에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은 8개교이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약 320명의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이다. 전체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약 7.7%에 해당한다.

치과위생사 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미국은 1913년에 처음으로 치과위생사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46년까지 단지 14개 학교만 존속하였으나 2008년에는 약 300여개의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2010년 현재 약 310개의 교육기관 가운데 약 70개의 학사과정 치위생학과가 운영되고 있다²⁾.

또한 일본에서는 1922년 처음으로 치과위생사 교육이 시작되었다. 1989년에 모든 교육기관이 2년제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에는 3년 과정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2004

[†]Corresponding author
Tel: 041-580-2560
Fax: 041-580-2927
E-mail: cyoungs@nsu.ac.kr

년에 4년제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되어 2007년에는 총 154개의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4년제 4개, 3년제 67개, 2년제 82개로 운영되어 입학정원이 약 7,000 여명에 이른다³⁾.

우리나라에서 학사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 일차적인 목적은 교수요원의 양성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 치위생학의 학문적 정립이라고 볼 수 있다⁴⁾.

미국은 치위생학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효과적인 치위생 교육제도를 정착시켰다⁵⁾. 또한 미국의 치위생 교육은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치위생과정(dental hygiene process)’의 철학과 원칙에 입각하여⁶⁾, 신규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competency)⁷⁾을 교육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다^{7,8)}. 학사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임상적판단과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전문적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달성 여부는 학사 치과위생사들의 취업 및 사회진출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취업실태 현황과 관련된 조사로는 박 등⁹⁾의 치과보조인력의 실태조사와 신 등¹⁰⁾의 치과위생사 인력추계에 대한 고찰 등의 연구가 있지만 이는 전문학사 치과위생사와 학사 치과위생사의 구분 없이 실시한 연구들이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로는 전공 교육 만족도 및 직업관¹¹⁻¹⁵⁾이나 취업 및 직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¹⁷⁻²⁴⁾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해외취업에 관한 의식¹⁶⁾,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²⁵⁾들도 있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역시 전문학사학위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이며 학사학위 과정 학생들만의 특성과 취업의식, 직업관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없다. 학사학위 졸업생들의 취업 및 활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졸업생의 배출 연한이 4년 정도로 매우 짧으며, 졸업생의 수도 적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의 진로 의식 등과 같은 행동의도를 통하여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과 진로계획에 대하여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들의 진로계획과 직업관을 파악하여 진로선택 및 취업에 대한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과 비교하여 향후 진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도권 지역, 중부(충청)지역, 남부(호남)지역에 소재한 10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현재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는 22개이며 이 중 2011년도 졸업생을 배출하는 치위생학과는 8개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약 320명의 졸업예정자가 있다. 이 가운데 6개 대학교 졸업예정자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84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70.8%였다. 이는 4년제 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전체의 57.5%에 해당한다.

3년제 전문학사학위 과정 치위생과는 2010년 현재 56개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와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4개 대학을 판단추출 하였으며 이들 대학의 졸업예정자 288명을 조사하였고 25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87.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2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전체 548명을 대상으로 하여 43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79.7%였으며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설문지 2부를 제외한 435부의 설문지를 입력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정 등¹¹⁾, 한¹²⁾, 한 등¹⁸⁾, 정 등²⁴⁾이 작성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발하였다. 예비조사는 A대학교 치위생학과 3학년 32명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하였고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문항)과 입학동기(1문항)에 대한 내용과 졸업 후 진로계획, 희망 취업기관, 취업희망기관에 대한 이유, 희망 연봉수준, 취업 지속기간 등과 같은 취업관련의식에 대한 내용(6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취업 시 고려사항(10문항)과 치과위생사 직업관(6문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취업 시 고려사항과 직업관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다섯 가지 응답범주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측정결과 취업 시 고려사항은 Cronbach's $\alpha=0.805$, 직업관은 Cronbach's $\alpha=0.765$ 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통계적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관련의식을 각 조사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학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업희망기관 및 희망이유는 다중응답 된 문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법으로 코딩한 후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취업 시 고려사항과 직업관에 대한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과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분산의 동질성 및 정규분포에 문제가 없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진로계획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결 과

1.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관련의식

학사학위 과정(4년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관련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직장 근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전문학사학위 과정(3년제) 치위생과 졸업예정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duates of Dept. of Dental Hygiene and Job-related recognition

| | | Total | | B.S. degree | | A.S. degree | | P-value |
|--|---|-------|-------|-------------|-------|-------------|-------|---------|
| | | N | % | N | % | N | % | |
| Gender | Male | 10 | 2.3 | 8 | 4.3 | 2 | 0.8 | .015 |
| | Female | 425 | 97.7 | 176 | 95.7 | 249 | 99.2 | |
| | Total | 435 | 100.0 | 184 | 100.0 | 251 | 100.0 | |
| Age | 20 | 66 | 15.2 | 0 | 0 | 66 | 26.4 | .000 |
| | 21 | 155 | 35.6 | 29 | 16.1 | 126 | 50.4 | |
| | 22 | 121 | 27.8 | 97 | 53.9 | 24 | 9.6 | |
| | 23 | 47 | 10.8 | 35 | 19.4 | 12 | 4.8 | |
| | ≥24 | 41 | 9.5 | 19 | 10.6 | 22 | 8.8 | |
| | Total | 430 | 98.9 | 180 | 100.0 | 250 | 100.0 | |
| | | | | | | | | |
| Motivation for choosing Dept. of D.H. | Aptitude and interest | 27 | 6.2 | 16 | 8.7 | 11 | 6.2 | .004 |
| | Good job-finding opportunity | 238 | 54.7 | 87 | 47.5 | 151 | 54.8 | |
| | Professional worker | 104 | 23.9 | 42 | 23.0 | 62 | 24.0 | |
| | Scholastic ability at high school | 38 | 8.7 | 25 | 13.7 | 13 | 8.8 | |
| | Others | 27 | 6.2 | 13 | 7.1 | 14 | 6.2 | |
| | Total | 434 | 99.8 | 183 | 100.0 | 251 | 100.0 | |
| Career plan | Getting a job | 389 | 89.4 | 146 | 79.3 | 243 | 96.8 | .000 |
| | Attending graduate school | 31 | 7.1 | 28 | 15.2 | 3 | 1.2 | |
| | Others | 15 | 3.4 | 10 | 5.4 | 5 | 2.0 | |
| | Total | 435 | 100.0 | 184 | 100.0 | 251 | 100.0 | |
| Desired annual salary at the first job | <1,800 | 35 | 8.0 | 9 | 5.3 | 26 | 10.7 | .000 |
| | 1,800~2,000 | 155 | 35.6 | 31 | 18.3 | 124 | 51.2 | |
| | 2,000~2,200 | 121 | 27.8 | 53 | 31.4 | 68 | 28.2 | |
| | 2,200~3000 | 80 | 18.4 | 56 | 33.2 | 24 | 9.9 | |
| | ≥3,000 | 20 | 4.6 | 20 | 11.8 | 0 | 0 | |
| | Total | 411 | 94.4 | 169 | 100.0 | 242 | 100.0 | |
| Period of work at the first workplace | Lifelong | 29 | 6.7 | 12 | 6.5 | 17 | 6.8 | .966 |
| | Transfer after a specific period of work | 88 | 20.2 | 40 | 21.7 | 48 | 19.1 | |
| | Transfer give good conditions and opportunity | 186 | 42.8 | 77 | 41.8 | 109 | 43.4 | |
| | Depending on conditions | 128 | 29.4 | 53 | 28.8 | 75 | 29.9 | |
| | Others | 4 | 0.9 | 2 | 1.1 | 2 | 0.8 | |
| | Total | 435 | 100.0 | 184 | 100.0 | 251 | 100.0 | |
| | | | | | | | | |
| Period of continuous work | Till marriage | 16 | 3.7 | 4 | 2.2 | 12 | 4.8 | .000 |
| | Till pregnancy | 14 | 3.2 | 4 | 2.2 | 10 | 4.0 | |
| | Till delivery | 10 | 2.3 | 1 | 0.5 | 9 | 3.6 | |
| | Till economic stability | 188 | 43.2 | 64 | 34.8 | 124 | 49.4 | |
| | Till retirement age | 168 | 38.6 | 90 | 48.9 | 78 | 31.1 | |
| | Others | 39 | 9.0 | 21 | 11.4 | 18 | 7.2 | |
| | Total | 435 | 100.0 | 184 | 100.0 | 251 | 100.0 | |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 치위생과 졸업예정자에 비하여 남자가 더 많고, 입학동기 중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계획은 '대학원 진학'이, 활동지속기간은 '정년 때까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학사학위 과정이 4.3%로 전문학사학위 과정 0.8%에 비하여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입학동기 중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가 학사학위 과정은 13.7%,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8.8%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05$). 진로에 대한 계획은 '대학원 진학'이 15.2%로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1.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치과위생사로서 활동 지속 기간은 '정년 때까지'가 48.9%로 전문학사학위 과정 31.1%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2.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희망기관 및 희망이유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희망기관 및 희망이유를 조사하였다(Table 2).

전체 케이스에 기초한 백분율(Pct of Case)에 비하여 응답에 기초한 백분율(Pct of Resposes)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복수응답을 한 문항들이 있어 백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였다. 각 변수를 이분법으로 코딩한 후 다중응답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과 희망이유를 순위로 분석하였다.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가 37.6%인 1순위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이 34.7%, '치과의원'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학사학위 과정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들은 '치과병원'이 38.6%인 1순위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이 31.7%, '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이 16.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와 '치과병원'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는 68.9%인 반면에 '치과의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26.7%에 불과했다.

위의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학사학위 과정은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기간 보장'이 17.0%, '급여'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기간 보장'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성'이 19.9%,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18.4% 순으로 나타났다.

3.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 시 고려사항의 중요도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 시 고려사항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급여가 4.402 ± 0.654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월차유무 및 휴가일수는 4.293 ± 0.747 , 근무시간은 4.245 ± 0.75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학사(3년제) 과정 치위생과 졸업예정자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학사 및 전문학사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 시 고려사항에 대한 두 모집단 평균차이 검증 결과 학제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직업의 사회적 위신, 의료기관의 유형·규모·시설 등, 계속교육기회 부여에 차이가 있

Table 2. Organizations the graduates want to work for and reasons they want to do(Multiple responses)

| | | Total(N=435) | | B.S. degree(N=184) | | | A.S. degree(N=251) | | |
|---------------|---|--------------|-------|--------------------|-------|------|--------------------|-------|------|
| | | N | % | N | % | Rank | N | % | Rank |
| Organizations | Dental college hospitals, Dental clinics of general hospitals | 113 | 27.2 | 65 | 37.6 | 1 | 48 | 16.4 | 3 |
| | Dental hospitals | 173 | 41.7 | 60 | 34.7 | 2 | 113 | 38.6 | 1 |
| | Dental clinic | 111 | 26.7 | 18 | 10.4 | 3 | 93 | 31.7 | 2 |
| | Others (a company) | 23 | 11.1 | 17 | 9.8 | 4 | 6 | 2.0 | 5 |
| | A health care center | 46 | 5.5 | 13 | 7.5 | 5 | 33 | 11.3 | 4 |
| | Total | 466 | 112.3 | 173 | 100.0 | | 293 | 100.0 | |
| Reason | Potential for development | 117 | 26.9 | 63 | 31.5 | 1 | 54 | 18.4 | 3 |
| | Ensuring of working till retirement age | 95 | 21.8 | 34 | 17.0 | 2 | 61 | 20.9 | 1 |
| | Salary | 71 | 16.4 | 24 | 12.0 | 3 | 47 | 16.1 | 4 |
| | Welfare and benefits for workers | 46 | 10.6 | 23 | 11.5 | 4 | 23 | 7.9 | 5 |
| | Social evaluation | 42 | 9.7 | 20 | 10.0 | 5 | 22 | 7.5 | 7 |
| | Specialty | 77 | 17.7 | 19 | 9.5 | 6 | 58 | 19.9 | 2 |
| | Others | 33 | 7.6 | 10 | 5.0 | 7 | 23 | 7.9 | 5 |
| | Social contribution | 7 | 1.6 | 5 | 2.5 | 8 | 2 | 0.7 | 8 |
| | Potential for promotion | 4 | 0.9 | 2 | 1.0 | 9 | 2 | 0.7 | 8 |
| | Total | 492 | 113.2 | 200 | 100.0 | | 292 | 100.0 | |

다고 나타났다($p < 0.05$).

4.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직업관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직업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치과위생사는 언제나 쉽게 취업할 수 있다’가 3.652 ± 0.9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에 만족한다’는 3.353 ± 0.929 , ‘안정적인 직업이다’는 3.310 ± 0.951 ,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는 3.250 ± 0.9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문학사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제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를 두 모집단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제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향후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에 만족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진로계획에 따른 직업관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의 취업 희망과 대학원진학 희망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비교를 시행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p < 0.05$) Mann-Whitney U 검정을 시행하여 두 집단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5).

Table 3. Importance of considerations when getting a job

| | B.S. degree(N=184) | | | A.S. degree(N=251) | | | t | P-value |
|---|--------------------|-------|------|--------------------|-------|------|--------|---------|
| | Mean | SD | Rank | Mean | SD | Rank | | |
| Salary | 4.402 | 0.654 | 1 | 4.394 | 0.727 | 1 | 0.115 | .909 |
| Holidays including a day or month's leave | 4.293 | 0.747 | 2 | 4.343 | 0.744 | 2 | -0.679 | .497 |
| Work time | 4.245 | 0.754 | 3 | 4.187 | 0.775 | 3 | 0.771 | .441 |
| Specialty | 4.207 | 0.702 | 4 | 3.880 | 0.755 | 6 | 4.584 | .000 |
| Treatment at night or on holidays | 4.174 | 0.791 | 5 | 4.187 | 0.926 | 3 | -0.158 | .875 |
| Social prestige of job | 4.087 | 0.711 | 6 | 3.841 | 0.774 | 8 | 3.393 | .001 |
| Type, size and facilities of the medical organization | 4.060 | 0.804 | 7 | 3.857 | 0.723 | 7 | 2.760 | .006 |
| Time taken to go to work | 4.027 | 0.815 | 8 | 4.052 | 0.821 | 5 | -0.308 | .758 |
| Addition opportunity for education | 3.847 | 0.895 | 9 | 3.532 | 0.910 | 9 | 3.583 | .000 |
| Dormitory/House | 2.647 | 1.219 | 10 | 2.677 | 1.129 | 10 | -0.269 | .788 |

Table 4. The job view of the graduates

| | B.S. degree(N=184) | | | A.S. degree(N=251) | | | t | P-value |
|--|--------------------|-------|------|--------------------|-------|------|--------|---------|
| | Mean | SD | Rank | Mean | SD | Rank | | |
| I can always easily get a job. | 3.652 | 0.957 | 1 | 3.618 | 0.875 | 1 | 0.392 | .695 |
| I am satisfied by the job as a dental hygienist in the future. | 3.353 | 0.929 | 2 | 3.522 | 0.882 | 2 | -1.926 | .055 |
| It is a stable job. | 3.310 | 0.951 | 3 | 3.343 | 0.864 | 3 | -0.375 | .708 |
| It fits my aptitude | 3.250 | 0.965 | 4 | 3.211 | 0.963 | 4 | 0.415 | .678 |
| It is a job that is socially highly reputed. | 2.913 | 0.954 | 5 | 3.143 | 0.860 | 5 | -2.635 | .009 |
| I am likely to have it as a lifelong job. | 2.913 | 1.063 | 5 | 2.765 | 0.978 | 6 | 1.504 | .133 |

Table 5. The job view according to career plan

| | Getting a job (N=146) | | Attending Graduate School(N=28) | | P-value |
|--|-----------------------|-------|---------------------------------|-------|---------|
| | Mean | SD | Mean | SD | |
| I can always easily get a job. | 3.64 | 0.952 | 3.71 | 1.084 | .342 |
| It is a job that is socially highly reputed. | 2.92 | 1.004 | 2.86 | 0.705 | .394 |
| It is a stable job. | 3.28 | 0.974 | 3.43 | 0.879 | .279 |
| I am likely to have it as a lifelong job. | 2.89 | 1.051 | 3.07 | 1.086 | .227 |
| It fits my aptitude. | 3.32 | 0.961 | 2.96 | 0.922 | .043 |
| I am satisfied by the job as a dental hygienist in the future. | 3.45 | 0.917 | 3.07 | 0.858 | .021 |

직업관에 관한 6개의 조사항목 가운데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의 평균이 3.32 ± 0.961 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집단의 평균인 2.96 ± 0.92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43$). ‘향후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에 만족한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의 평균은 3.45 ± 0.917 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집단의 평균인 3.07 ± 0.858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고 찰

치위생교육이 시작된 이후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위생교육기관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의 연장, 4년제 치위생학과와 개설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2002년 개설된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는 2006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약 32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사회진출에 대한 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들의 진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응답이 15.2%로 전문학사학위 과정인 1.2%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졸업생 11명 가운데 3년제 치위생과 졸업생은 4명, 4년제 치위생학과 졸업생은 7명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졸업생은 약 20명이다. 이 가운데 치위생(학)과 졸업생이 가장 많은 교실은 예방치과학교실로 7명의 치과위생사가 재학 중이며 7명 모두 4년제 치위생학과 졸업생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생이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생에 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일차적인 목적인 교수요원의 양성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 치위생학의 학문적 정립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로서의 활동 지속 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는 ‘정년 때까지’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이 결과는 주 등¹⁹⁾, 김 등²⁰⁾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년 때까지’에 대한 응답은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이 치과위생사로서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결과 직종별 평균값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근속평균연령은 30.0세이며 근속년수는 5.7년으로 간호사의 근속년수 6.4년, 의료기사의 근속년수 9.1년, 간호조무사의 근속년수 13.7년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이 짧은 것은 결혼에 따른 출산 및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조기 퇴직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된다. 졸업예정자들이 정년 때까지 치과위생사로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기혼자의 활동지속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와 ‘치과병원’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는 조사대상자의 68.9%인 반면에 ‘치과의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26.7%에 불과했다.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만을 볼 때 ‘치과의원’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0.4%로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치과의원에 대한 기피현상은 정 등¹¹⁾, 강²⁷⁾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은 ‘치과병원’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 보다는 ‘치과의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증가와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자의 증가와 같이 인력 추계상으로 치과위생사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 임상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치과의료기관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9,10)}. 특히 치과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른 인력수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 중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원이 27.8%로 나타나 치과의원의 치과위생사 인력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²⁸⁾.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중 ‘치과의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25.5%에 불과하며, 특히 이러한 결과가 학사학위 과정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가 졸업예정자들의 국가고시를 불과 1~2개월 앞둔 시점이었으며 이 시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는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기간 보장’이 17.0%, ‘급여’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은 치과의원 보다 병원급 치과의료기관의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안정적으로 근무기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원에 비해 병원급 치과의료기관의 급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급 치과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는 안정적인 근무기간 보장과 직업의 전문성, 발전 가능성 등의 이유로 취업희망기관을 선택하고 있다. 치과병원 다음으로 치과의원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던 것은 치과의원의 특성인 가족적인 분위기와 인간관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급여’가 $4.402 \pm$

0.654, '월차유무 및 휴가일수'가 4.293 ± 0.747 , '근무시간'이 4.245 ± 0.75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²⁴⁾의 연구에서 직장선택 시 중요시하는 것으로 '급여'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며, 임¹⁴⁾의 연구에서 직장선택기준에 대하여 '보수가 많은 곳'에 62.0%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결과는 졸업 후 취업 희망 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 직장을 선택할 필요를 느끼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무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직업을 통해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제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직업의 사회적 위신, 의료기관의 유형·규모·시설 등, 계속교육기회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가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보다 전문성과 자기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관에 대한 조사 결과 '치과위생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에 대하여 학사학위 과정은 2.913 ± 0.954 ,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3.143 ± 0.860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보다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의 진로계획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와 '향후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에 만족한다'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집단에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정 등¹¹⁾의 연구에서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아실현'이 42.4%, '치과위생사의 지위향상'이 23.5%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통해 만족감을 얻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더욱 개발하고 치과위생사의 지위를 향상시켜 만족감을 높이고자 대학원에 진학 후 학업을 계속하려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들은 취업 후 치과위생사로서 정년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기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병원급 치과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시 고려사항으로 급여, 월차유무 및 휴가일수, 근무시간 등과 같은 근무조건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에 비해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치과위생사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직업적 특성 상 결혼 및 출산, 기혼 치과위생사의 자녀양육문제 등과 같은 이유로 조기퇴직하지 않도록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의료기관 유형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과의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치위생 교육기관에서는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이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인식 향상을 통해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졸업 예정자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에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본 연구가 2011년도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전체의 57.5%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들의 진로계획과 직업관을 파악하여 진로선택 및 취업에 대한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과 비교하여 향후 진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011년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 8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가운데 6개 대학교 졸업예정자 184명과 3년제 전문학사학위 과정 치위생과 졸업예정자 251명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사학위 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에서는 대학원 진학 희망자가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보다 많았으며, 취업 후 치과위생사로서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정년까지'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문학사학위 과정 치위생과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들은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기간이 보장되며,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병원급 치과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 시 고려사항으로는 급여, 월차유무 및 휴가일수, 근무시간 등과 같은 근무조건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4.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는 치과위생사의 직업관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가 전문학사학위 과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5.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조영식, 이수영: 임상구강위생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치위생과 학회지 5(1): 33-38, 2005.
2.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Retrieved November 10, 2010, from <http://www.adha.org>
3. 강부월 등: 치위생학개론. 지성출판사, 서울, 2008.
4. 조영식: 학사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연구. 치위생과학회지 5(4): 251-258, 2005.
5. Darby ML, Salsh M M: Dental hygiene theory and practice. Philadelphia. W.B. Saunders, 2003.
6. Muller-Joseph L. Petersen M: Dental hygiene process: diagnosis and care planning. Albany, Delmar, 1995.
7. ADEA(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Competencies for entry the profession of dental hygiene. J Dent Edu 65: 662-666, 2001.
8. Iassman P. Chamber DW: Developing competency systems: a never-ending story. J Dent Edu 62: 173-181, 1998.
9. 박용덕 등: 치과보조인력 실태조사. 서울, 대한치과의사협회, 2008.
10. 신선정 등: 치과위생사 인력추계와 업무범위에 관한 고찰. 치위생과학회지 7(1): 25-30, 2007.
11. 정재연, 최정아: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교육 및 직업관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1): 131-145, 2000.
12. 한경순: 치위생과 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가천길대학 논문집 29: 477-489, 2001.
13. 김진수, 임근옥: 일부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선택 만족도 및 취업의식변화.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6(2): 103-113, 2006.
14. 임근옥: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선택 만족도 및 진로방향에 대한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2003.
15. 김화주, 임근옥, 김윤정: 치위생과 학생들의 입학전 학과 인지도와 만족도 및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6(2): 115-127, 2006.
16. 김화주, 임근옥, 정상희: 치위생과 학생들의 해외취업에 관한 인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6(3): 175-185, 2006.
17. 전미진, 최문실, 박정수: 광주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9(3): 294-305, 2009.
18. 한수진, 이선미, 임미희: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7(4): 583-594, 2007.
19. 주은주, 이현옥: W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6(2): 119-125, 2006.
20. 김경미, 정영란, 한화진: 치위생과 학생의 취업가치관과 취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9(2): 1-11, 2009.
21. 한양금, 유지수: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치위생과학회지 10(1): 31-38, 2010.
22. 이선미, 김송전, 한수진: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5(4): 239-244, 2005.
23. 이항남, 심형순: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치위생과학회지 7(2): 107-112, 2007.
24. 정화영, 정상희: A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직장결정요인. 한국위생과학회지 15(1): 101-112, 2009.
25. 김은주, 김진경: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및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8(4): 65-77, 2008.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0.
27. 강부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경험과 치위생직에 대한 태도변화와의 관계 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논문집 14(1): 319-332, 1997.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도 의료인력 현황 및 요양기관 현황.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Received January 16, 2011; Revised February 16, 2011;
Accepted February 21, 2011)

